



2017. 06

해외 ICT 표준화 동향

2nd week

목차

- 본문** 1. 리눅스, 오픈소스와 표준과의 조화 필요성 강조
- 기타** - 중국, 표준화법 개정 초안 의견수렴 중
 - EU, 무료 WiFi 핫스팟 설치 관련 WiFi4EU 이니셔티브
 결성 동의 체결

* 게시물 보기

TTA 홈페이지 > 자료마당 > TTA 간행물 >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

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1. 리눅스, 오픈소스와 표준과의 조화 필요성 강조

(Linux Wants to 'Harmonize' Open Source & Standards)

보도날짜 2017. 5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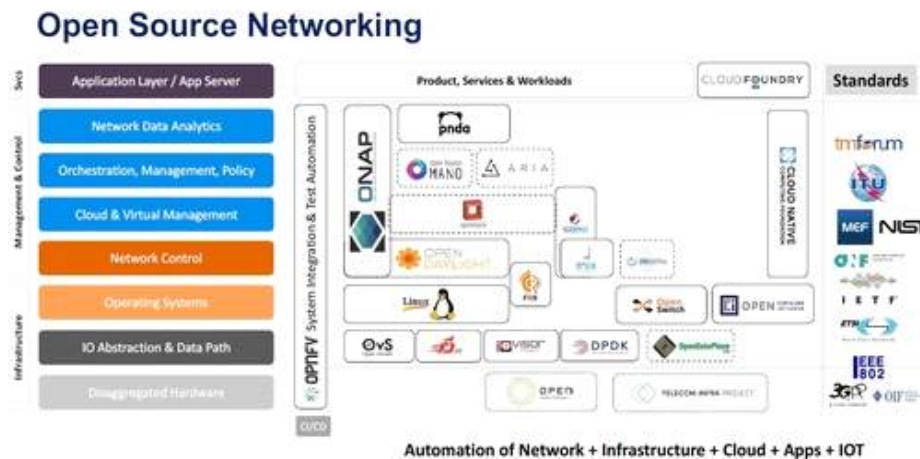
출 처 LightReading

사 이 트 <http://www.lightreading.com/open-source/industry-bodies-groups/linux-wants-to-harmonize-open-source-and-standards/d/d-id/732426>

- 2017년 5월 1일, 리눅스 백서인 '오픈소스와 표준의 조화(Harmonizing Open Source and Standards in the Telecom World)'에서 오픈소스와 표준과의 조화 필요성 강조
 - 이번 발표된 백서에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표준개발기구가 NFV와 SDN의 다중판매자(multi-vendor) 간 상호운용성 및 자동화 생산의 속도 가속화를 위해 협력해야 함을 밝힘
 -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법률 및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
- 리눅스 백서에 따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단독형 프로젝트로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, "공통 기술스택(stack)을 유지 관리하는 최종사용자와 더 잘 연계" 될 필요가 있으므로 노력이 필요하다 밝힘
 
 - 최근 개최된 오픈 네트워크 서밋에서 리눅스 재단 네트워크 부장인 아피트 조시푸라(Arpit Joshipura)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
 -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통합 아키텍처(unified architecture)를 기반으로 하며, 다양한 오픈소스 그룹을 기존 표준개발기구(SDO)와 연계하려는 노력이 중복되고 있다며, 리눅스 재단은 이러한 중복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픈소스와 표준을 '조화' 시키려 노력할 것임
- 리눅스 재단은 산업계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단순히 종이 상의 규격이 아닌 코드와 구현에 초점을 맞춰 그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점과, 표준개발기구도 참조 아키텍처와 유스케이스와 관련됨을 인식하고 있다 밝힘
 - 또한, 두 그룹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의 도입 및 나아갈 방향 설정 등의 동일 목표를 인정하고 있다 언급함

출처: 리눅스재단

- 2016년 말, 통합 아키텍처 구조를 통해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표준개발기구의 중복과 협력해야 하는 상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음



출처: 리눅스재단

- TM 포럼¹⁾, MEF(Metro Ethernet Forum)²⁾ 및 ETSI NFV ISG는 오픈소스 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, 다른 기관에서 결정된 ONS(Object Name Service)³⁾의 메인 부분은 작업 논의 방법에 관하여 (비)공개 세션 미팅을 개최하였음
- 리눅스 재단은 최종 결과점은 동일하나 방향이 다르면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아키텍처와 통합을 위한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, 공급자가 오픈API⁴⁾를 지칭하거나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언급할 때 의미가 동일하지 않음을 지적하며, 용어와 프로세스를 정렬하고 조직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공통 용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을 강조함
- 다만, 오픈소스와 표준개발기구가 협력하는데는 두가지 문제가 존재함
- 첫번째는 표준개발기구 및 산업 포럼, 컨소시엄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접근방법이 서로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, 두번째는 공급업체가 참여하고

1) TM 포럼 : TM 포럼은 (이전에는 TeleManagement 포럼 과 네트워크 관리를 포럼)는 통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서비스 제공자 와 그들의 공급업체를 위한 비영리 업계 협회이다. IPsphere 포럼 그룹이 2008년에 포함되었다. 회원은 통신 회사 , 케이블 사업자, 네트워크 사업자는,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,장비 공급업체 및 시스템 통합 사업자이다. 2012년 12월 기준포럼은 여러 나라에 걸쳐 900 회원이 있다. <출처: 위키백과>

2) MEF(Metro Ethernet Forum) : 2001년 설립된 MEF는 캐리어 이더넷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국제적인 산업 컨소시엄 비영리협회이다. 이 포럼은 메트로 이더넷에 관심이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, 기존 지역교환통신사업자, 네트워크 장비 업체 및 기타 네트워킹 회사로 구성되어 있고, 2015년 9월 217명의 회원이 있다. MEF는 메트로 이더넷 채택을 촉진 하기 위하여 기술적 및 마케팅 포럼의 합작으로,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 및 IEEE와 같은 표준화기구와 반대된다. 이 포럼은 기존 표준기관에 표준을 개발하며 다른 표준기구에 의해 개발되지 않은 규격들도 개발한다. <출처: 위키백과>

3) 객체명 서비스(ONS, Object Name Service) : ONS란 정보가 있는 올바른 컴퓨터를 가리키는 자동화 네트워킹이다. RFID 태그에는 EPC(Electronic Product Code)만 저장되므로 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와 EPC를 맞춰보는 몇 가지 방법을 진행한다. 즉 RFID 코드와 관련된 사물의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서버의 위치를 알려 주는 서비스이며, 이미 존재하는 인터넷 표준과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도메인 네임 시스템(DNS)을 바탕으로 EPC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. <출처: 정보통신용어사전, <http://terms.tta.or.kr>>

4) 오픈API :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인터페이스(UI)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. 지도 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<출처: 매일경제용어사전>

기여할 수 있는 더 나은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문제가 있음

- 이번 리눅스 백서에서는 이러한 다른 지적재산 모델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하여 '실망을 유발할 수 있는' 오픈소스 작업에 대한 빠른 속도를 지적하며, 상대적으로 오픈소스가 배포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면서 더 관대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만큼 통합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함
- 또한, 리눅스 재단은 많은 공급자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수익창출 제품 라인이 오픈소스 개발에 약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소극적이라며, 협력 작업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공급업체 측면에서 업무처리 속도를 높여 제품 출시 시간을 단축시키고 매출과 이익을 높일수 있도록 더 많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데 중점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언급함



기타 소식

중국, 표준화법 개정 초안 의견수렴 중

- ▶ 출처 : http://www.npc.gov.cn/npc/flcazqyj/2017-05/15/content_2021705.htm (2017. 5. 16.)
- 2017년 5월 16일, 중국 전인민대회 상무위원회(NPC), 표준화법 개정안에 대하여 6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 중임
- 의견 제출 : http://www.npc.gov.cn/COBRS_LFYJNEW/user/Law.jsp

EU, 무료 WiFi 핫스팟 설치 관련 WiFi4EU 이니셔티브 결성 동의 체결

- ▶ 출처 : 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news/eu-institutions-agree-wifi4eu-initiative_en (2017. 5. 30.)
- 2017년 5월 30일,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, WiFi4EU 이니셔티브를 결성하여 유럽연합 전역에 무료 공공 WiFi 핫스팟 설치 지원에 대한 동의 계약을 체결함